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 <표>는 8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기관	전체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남동청	4,013	121	58	1.45
A	2,818	85	30	1.06
B	22,323	670	301	1.35
북동청	92,385	2,772	1,422	1.54
C	22,509	676	361	1.60
D	19,927	598	332	1.67
남서청	53,401	1,603	947	1.77
북서청	19,989	600	357	1.79

※ 장애인 고용률(%) = $\frac{\text{장애인 고용인원}}{\text{전체 고용인원}} \times 100$

<조 건>

- 동부청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서부정보다 많고, 남부정보다 적다.
- 장애인 고용률은 서부청이 가장 낮다.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북부청이 남부정보다 적다.
- 동부청은 남동정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많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낮다.

	A	B	C	D
①	동부청	서부청	남부청	북부청
②	동부청	서부청	북부청	남부청
③	서부청	동부청	남부청	북부청
④	서부청	동부청	북부청	남부청
⑤	서부청	남부청	동부청	북부청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조건 ①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순위

C > B > D > A

남부 > 동부 > 서부

조건 ②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건 A, A = 서부청

①, ②번 선지 소거

조건 ③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순위

남부 > 북부 → 조건 ①과 ③에 의하여 남부는 C

④, ⑤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2. 다음 <표>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기 위해 만든 요건별 판단기준과 ‘가’ ~ ‘카’국의 2015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요건별 판단기준

요건	A	B	C
	현저한 대미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 환율시장 개입
판단 기준	대미무역수지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3 % 초과	GDP 대비 외화자산 순매수액 비중 2 % 초과

- ※ 1) 요건 중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
 2) 요건 중 두 가지만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표 2>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자료(2015년)

(단위 : 10억 달러, %)

항목 국가	대미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GDP 대비 외화자산 순매수액 비중
가	365.7	3.1	- 3.9
나	74.2	8.5	0.0
다	68.6	3.3	2.1
라	58.4	- 2.8	- 1.8
마	28.3	7.7	0.2
바	27.8	2.2	1.1
사	23.2	- 1.1	1.8
아	17.6	- 0.2	0.2
자	14.9	- 3.3	0.0
차	14.9	14.6	2.4
카	- 4.3	- 3.3	0.1

<보 기>

- ㄱ.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없다.
 ㄴ. ‘나’국은 A요건과 B요건을 충족한다.
 ㄷ.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모두 4개이다.
 ㄹ. A요건의 판단기준을 ‘대미무역수지 200억 달러 초과’에서 ‘대미무역수지 150억 달러 초과’로 변경하여도 관찰대상국 및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들은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2>기준 값은 <표1>에서 제시 했다.

3가지 모두 = 환율 조작국

2가지 ‘만’ = 관찰 대상국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A요건(20↑), B요건(3↑), C요건(2↑) 인 것은 ‘다’국이 있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풀지 않아도 되는 보기 ㄹ

보기 ㄴ (단순 확인)

‘나’국의 경우 A요건(20↑)과 B요건(3↑)을 충족한다 → 옳다.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A요건(20↑), B요건(3↑), C요건(2↑) 중 2개만 충족

가, 나, 마, 차 4개국이다. → 옳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3. 다음 <표>는 6개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광종을 분류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6개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단위 : 점)

광종 항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위험도	2.5	4.0	2.5	2.7	3.0	3.5
경제성	3.0	3.5	2.5	2.7	3.5	4.0

<분류기준>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모두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축필요광종’으로 분류하고,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점 초과, 다른 하나는 2.5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시광종’으로 분류하며, 그 외는 ‘비축제외광종’으로 분류한다.

- ㄱ. ‘주시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1종류이다.
- ㄴ. ‘비축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은광’, ‘아연광’, ‘철광’이다.
- ㄷ. 모든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현재보다 각각 20% 증가하면, ‘비축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4종류가 된다.
- ㄹ. ‘주시광종’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점 초과, 다른 하나는 2.5점 이상 3.0점 이하’로 변경한다면, ‘금광’과 ‘아연광’은 ‘주시광종’으로 분류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분류기준>을 보면

위험도, 경제성 3점 초과 = 비축필요광종
1개는 3점초과 1개는 2.5초과 3점 이하 = 주시광종
나머지 = 비축제외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주시 광종 = 1개 3점초과, 1개 2.5초과 3점이하
아연광 1개뿐이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ㄴ

보기 ㄴ (단순 확인)

비축필요광종 = 2개 3점초과
아연광은 아니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금광의 경우 3점을 초과하는 것이 없기에, 주시광종이 아니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4. 다음 <표>는 중학생의 주당 운동시간 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중학생의 주당 운동시간 현황
(단위 : %,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시간 미만	비율	10.0	5.7	7.6	18.8	19.2	25.1
	인원수	118	66	87	221	217	28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율	22.2	20.4	19.7	26.6	31.3	29.3
	인원수	261	235	224	312	353	32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비율	21.8	20.9	24.1	20.7	18.0	21.6
	인원수	256	241	274	243	203	24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율	34.8	34.0	23.4	30.0	27.3	14.0
	인원수	409	392	266	353	308	157
4시간 이상	비율	11.2	19.0	25.2	3.9	4.2	10.0
	인원수	132	219	287	46	47	112
합계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원수	1,176	1,153	1,138	1,175	1,128	1,120

<보 기>

- ㄱ. ‘1시간 미만’ 운동하는 3학년 남학생 수는 ‘4시간 이상’ 운동하는 1학년 여학생 수보다 많다.
- ㄴ. 동일 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면, 남학생 중 ‘1시간 미만’ 운동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중 ‘1시간 미만’ 운동하는 여학생의 비율보다 각 학년에서 모두 낮다.
- ㄷ.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학년이 높아질수록 3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아진다.
- ㄹ. 모든 학년별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이 ‘4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 합계 존재
- 비율, 분모동일 방향 ↓

<관점의 적용>

- 보기 ㄱ (단순 확인)
- 1시간 미만 3학년 남학생 수 = 87명
- 4시간 이상 1학년 여학생 수 = 46명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다. → 옳다.
- (※ 비율로 보지 않도록 조심한다.)
- ③,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ㄷ

-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 3시간 이상 운동하는 비율
- 남학생 1학년 = 34.8 + 11.2
- 남학생 2학년 = 39.0 + 19.0
- 높아졌다. → 옳지 않다.
-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ㄹ중 선택
- 보기 ㄹ (단순 확인)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율 > 4시간 이상
- 3학년 남학생의 경우 4시간 이상이 더 많다. → 옳지 않다.
- (※ 분모동일방향간의 비교이기에 인원수로 봐도 무관하다.)
-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5. 다음 <표>는 둘씩 짝지은 A ~ F 대학 현황 자료이다. <조건>을 근거로 A-B, C-D, E-F 대학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나열한 것은?

<표> 둘씩 짝지은 대학 현황
(단위 : %, 명, 달러)

짝지은 대학	A - B		C - D		E - F	
	A	B	C	D	E	F
입학허가율	7	12	7	7	9	7
졸업률	96	96	96	97	95	94
학생 수	7,000	24,600	12,300	28,800	9,270	27,600
교수 1인당 학생 수	7	6	6	8	9	6
연간 학비	43,500	49,500	47,600	45,300	49,300	53,000

<조 건>

- 짝지어진 두 대학끼리만 비교한다.
- 졸업률은 야누스가 플로라보다 높다.
- 로키와 토르의 학생 수 차이는 18,000명 이상이다.
- 교수 수는 이시스가 오시리스보다 많다.
- 입학허가율은 토르가 로키보다 높다.

	A - B	C - D	E - F
①	오시리스 - 이시스	플로라 - 야누스	토르 - 로키
②	이시스 - 오시리스	플로라 - 야누스	로키 - 토르
③	로키 - 토르	이시스 - 오시리스	야누스 - 플로라
④	로키 - 토르	플로라 - 야누스	오시리스 - 이시스
⑤	야누스 - 플로라	이시스 - 오시리스	토르 - 로키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조건 ① 짝지어진 대학끼리 비교한다.

조건 ② (단순확인)
A-B의 대학의 경우 졸업률이 같으므로, 야누스, 플로라가 될 수 없다. → ①번 선지 소거

조건 ③ (단순확인)
18,000명 이상 차이나는 것은 E-F뿐이다.
③, ④번 선지 소거

조건 ④ (단순확인)
선지에 의하여 A-B가 이시스와 오시리스

$$\text{교수 수} = \frac{\text{학생수}}{\text{교수 1인당 학생 수}}$$

$$\rightarrow A = \frac{7000}{7} = 1,000, B = \frac{24,600}{6} = 4,100$$
 B = 이시스, A = 오시리스 → ②번 선지소거
 (※ 조건 ④가 어렵다면 조건 ⑤를 풀자)

답 : ①

문 6. 다음 <표>는 2016년 1 ~ 6월 월말종가기준 A, B사의 주가와 주가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B사의 주가와 주가지수(2016년 1 ~ 6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주가(원)	A사	5,000	()	5,700	4,500	3,900	()
	B사	6,000	()	6,300	5,900	6,200	5,400
주가지수		100.00	()	109.09	()	91.82	100.00

※ 1) 주가지수 = $\frac{\text{해당 월 A사의 주가} + \text{해당 월 B사의 주가}}{\text{1월 A사의 주가} + \text{1월 B사의 주가}} \times 100$
 2) 해당 월의 주가 수익률(%) = $\frac{\text{해당 월의 주가} - \text{전월의 주가}}{\text{전월의 주가}} \times 100$

<보 기>

- ㄱ. 3 ~ 6월 중 주가지수가 가장 낮은 달에 A사와 B사의 주가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 ㄴ. A사의 주가는 6월이 1월보다 높다.
- ㄷ. 2월 A사의 주가가 전월 대비 20 % 하락하고 B사의 주가는 전월과 동일하면, 2월의 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 이상 하락한다.
- ㄹ. 4 ~ 6월 중 A사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에 B사의 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주가지수 = $\frac{\text{해당월 총액}}{\text{1월 총액}}$ (지수라고 편하게 생각하자)
 수익률 = 전월 대비 증가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주가지수가 가장 낮은 달 = 해당월 총액이 가장 낮은 달
 4500+5900 > 3900+6200
 5월의 경우 A사와 B사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지 않았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1월과 6월의 주가 지수가 동일하므로,
 B사의 주가를 통하여 A사의 주가를 확인할 수 있다.
 B사는 6월에 더 낮으므로, A사는 1월에 더 높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가중평균의 응용-1)

10%를 기준으로 넘치는 것은 20%, 부족한 것은 0%
 20%에서 10%가 넘치고, 0%에서는 10%가 부족하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가?
 A의 너비가 더 작으므로, 채울 수 없다. →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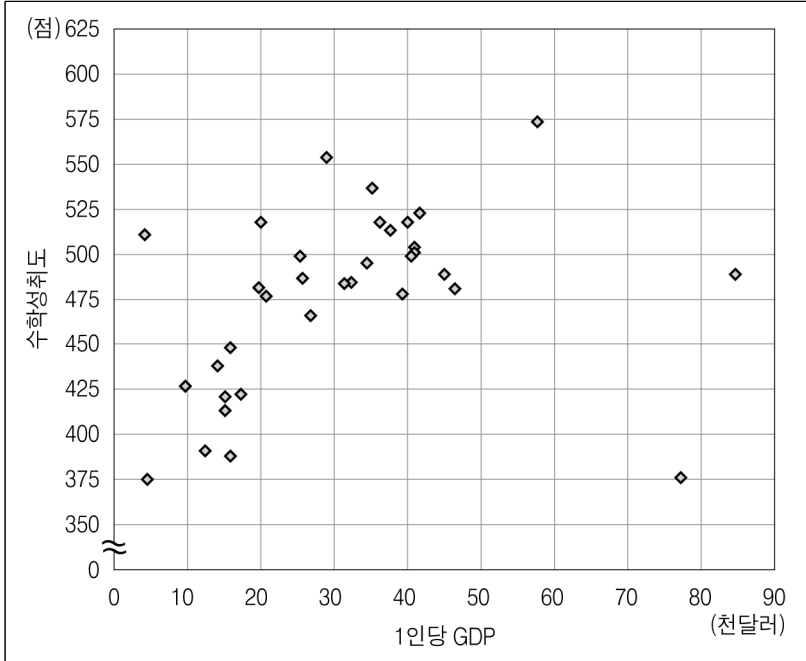
답 : ④

문 7. 다음 <표>는 2012년 34개국의 국가별 1인당 GDP와 학생들의 수학성취도 자료이고, <그림>은 <표>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가별 1인당 GDP와 수학성취도
(단위 : 천달러, 점)

국가	1인당 GDP	수학성취도
룩셈부르크	85	490
카타르	77	()
싱가포르	58	573
미국	47	481
노르웨이	45	489
네덜란드	42	523
아일랜드	41	501
호주	41	504
덴마크	41	500
캐나다	40	518
스웨덴	39	478
독일	38	514
핀란드	36	519
일본	35	536
프랑스	34	495
이탈리아	32	485
스페인	32	484
한국	29	554
이스라엘	27	466
포르투갈	26	487
체코	25	499
헝가리	21	477
폴란드	20	518
러시아	20	482
칠레	17	423
아르헨티나	16	388
터키	16	448
멕시코	15	413
말레이시아	15	421
불가리아	14	439
브라질	13	391
태국	10	427
인도네시아	5	()
베트남	4	511

<그림> 국가별 1인당 GDP와 수학성취도



※ 국가별 학생 수는 동일하지 않고, 각 국가의 수학성취도는 해당국 학생 전체의 수학성취도 평균이며, 34개국 학생 전체의 수학성취도 평균은 500점임.

<보 기>

- ㄱ. 1인당 GDP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 중에서 수학성취도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의 수와 낮은 국가의 수는 같다.
- ㄴ. 수학성취도 하위 7개 국가의 1인당 GDP는 모두 2만 달러 이하이다.
- ㄷ. 1인당 GDP 상위 5개 국가 중에서 수학성취도가 34개국 학생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1개이다.
- ㄹ. 수학성취도 상위 2개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는 수학성취도 하위 2개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의 정보와 <그림>의 정보가 같다. <그림> y축 생략이 있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체코의 1인당 GDP는 25
체코보다 수학 성취도가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으로 총 10개국으로, 낮은국가의 수와 같다. → 옳다. (풀어야 할까?)

보기 ㄹ (단순 확인)
그림을 보면, 성취도 상위 2개국의 GDP차이가 하위 2개국보다 작다. → 옳지 않다.

보기 ㄴ (단순 확인)
그림을 보면, 20(천달러)이상인 국가가 있다. → 옳지 않다.

답 : ②

문 8. 다음 <표>는 축구팀 ‘가’ ~ ‘다’ 사이의 경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경기 결과

팀 \ 기록	승리 경기수	패배 경기수	무승부 경기수	총득점	총실점
가	2	()	()	()	2
나	()	()	()	4	5
다	()	()	1	2	8

※ 각 팀이 나머지 두 팀과 각각 한 번씩만 경기를 한 결과임.

<보 기>

- ㄱ. ‘가’의 총득점은 8점이다.
 ㄴ. ‘나’와 ‘다’의 경기 결과는 무승부이다.
 ㄷ. ‘가’는 ‘나’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ㄹ. ‘가’는 ‘다’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총 득점 = 총 실점
 각 팀은 1경기 씩만 했다 → 1팀이 치룬 총 경기수 = 2경기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공통과 차이)
 총 득점 = 총 실점
 득점과 실점에서 2점과 4점을 소거하고 생각하면,
 가의 득점은 9득점이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풀지 않아도 되는 보기 ㄴ

보기 ㄷ (단순 확인)
 ‘가’와 ‘나’가 3 : 2의 결과라면
 ‘가’와 ‘다’는 6 : 0의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득실은 2:2이고,
 ‘다’에게 남은 득실도 2:2이다. 나와 다는 무승부 이므로 옳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가’와 ‘나’가 5 : 0의 결과라면
 ‘가’와 ‘다’는 4 : 2의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득실은 2:3이고,
 ‘다’에게 남은 득실도 3:2이므로 옳지 않다.
 (※ 풀어야 할까?)
 ⑤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9. 다음 <표>는 2008 ~ 2013년 '갑'국 농·임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농·임업 생산액 현황
(단위 : 10억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임업 생산액		39,663	42,995	43,523	43,214	46,357	46,648
분야별 비중	곡물	23.6	20.2	15.6	18.5	17.5	18.3
	화훼	28.0	27.7	29.4	30.1	31.7	32.1
	과수	34.3	38.3	40.2	34.7	34.6	34.8

※ 1) 분야별 비중은 농·임업 생산액 대비 해당 분야의 생산액 비중임.
2) 곡물, 화훼, 과수는 농·임업의 일부 분야임.

<표 2> 농·임업 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임업 부가가치		22,587	23,540	24,872	26,721	27,359	27,376
GDP 대비 비중	농업	2.1	2.1	2.0	2.1	2.0	2.0
	임업	0.1	0.1	0.2	0.1	0.2	0.2

※ 1) GDP 대비 비중은 GDP 대비 해당 분야의 부가가치 비중임.
2) 농·임업은 농업과 임업으로만 구성됨.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임업 부가가치		22,587	23,540	24,872	26,721	27,359	27,376
GDP 대비 비중	농업	2.1	2.1	2.0	2.1	2.0	2.0
	임업	0.1	0.1	0.2	0.1	0.2	0.2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 1>의 분모동일 방향 ↓

<표 2>의 분모동일 방향 ↓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011년의 경우, 농임업 생산액은 줄었으나, 부가가치는 늘어났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화훼의 생산액 = 농임업생산액 × 화훼의 비중

만약, 생산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즉, 확인을 해야하는 연도는 2009년, 2011년뿐

2008년 → 2009년

$396 \times 280 \rightarrow 430 \times 277$

$396 \times 3 \rightarrow 34 \times 277 \rightarrow$ 당연히 커졌다.

2010년 → 2011년

$435 \times 294 \rightarrow 432 \times 301$

$3 \times 294 \rightarrow 432 \times 7 \rightarrow$ 당연히 커졌다.

→ 매년 증가하였다. → 옳다.

(※ 굳이 풀어야 하는가?)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곡물 생산액은 과수생산액의 50% → 분모동일 방향간의 비교

$\frac{\text{곡물비중}}{\text{과수비중}}$ 은 매년 50% 이상?

2010년 $\frac{15.6}{40.2} < 50\% \rightarrow$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Copyright 2020 @ 박문각 자료해석 민은기

문 10. 다음 <표>는 A ~ F로만 구성된 ‘갑’반 학생의 일대일채팅방 참여 현황을 표시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 중 <표>와 <규칙>에 근거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반의 일대일채팅방 참여 현황

학생	F	E	D	C	B
A	0	1	0	0	1
B	1	1	0	1	
C	1	0	1		
D	0	1			
E	0				

※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대일채팅방의 참여 여부를 ‘0’과 ‘1’로 표시함.

<규 칙>

- 서로 다른 두 학생이 동일한 일대일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으면 ‘1’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내며, 그 값을 각 학생이 속한 행 또는 열이 만나는 곳에 표시한다.
- 학생 수가 n일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대일 채팅방의 개수는 $\frac{n(n-1)}{2}$ 이다.
- 일대일채팅방 밀도 = $\frac{\text{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대일채팅방의 개수}}{\text{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대일채팅방의 개수}}$

<보 기>

- ㄱ. 참여하고 있는 일대일채팅방의 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B이다.
- ㄴ. A는 C와 일대일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A는 B와, B는 C와 일대일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
- ㄷ. ‘갑’반의 일대일채팅방 밀도는 0.6 이상이다.
- ㄹ. ‘갑’반으로 전학 온 새로운 학생 G가 C, D와만 각각 일대일채팅방에 참여한다면, ‘갑’반의 일대일채팅방 밀도는 낮아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ㄱ 의 방향으로 읽어 낸다.

<관점의 적용>

- 보기 ㄱ (단순 확인)
- B의 경우 ㄱ 으로 읽었을 때, F,E,C,A 총 4명의 학생과 일대일 채팅방을 운영중이다.
- ㄱ 기준으로 읽었을 때 4개 이상인 학생은 없다.
- ③,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가중 평균)

전학 오기전 채팅방밀도 = $\frac{8}{15}$

전학을 오면 늘어나는 참여가능 채팅방의 개수 = 6개,
참여하고있는 채팅방 개수 = 2개

즉, $\frac{8}{15} > \frac{2}{6}$ 이므로, 밀도는 낮아진다.

- ①,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답 : ⑤

문 11. 다음 <표>는 ‘갑’국 맥주 수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주요 국가에 대한 ‘갑’국 맥주 수출액 및 증가율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3년	전년 대비 증가율	2014년	전년 대비 증가율	2015년	전년 대비 증가율	2016년 상반기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맥주 수출 총액	72,251	6.5	73,191	1.3	84,462	15.4	48,011	3.7
일본	33,007	12.4	32,480	-1.6	35,134	8.2	19,017	0.8
중국	8,482	35.9	14,121	66.5	19,364	37.1	11,516	21.8
이라크	2,881	35.3	4,485	55.7	7,257	61.8	4,264	-15.9
싱가포르	8,641	21.0	3,966	-54.1	6,790	71.2	2,626	-31.3
미국	3,070	3.6	3,721	21.2	3,758	1.0	2,247	26.8
호주	3,044	4.2	3,290	8.1	2,676	-18.7	1,240	-25.1
타이	2,119	9.9	2,496	17.8	2,548	2.1	1,139	-12.5
몽골	5,465	-16.4	2,604	-52.4	1,682	-35.4	1,005	-27.5
필리핀	3,350	-49.9	2,606	-22.2	1,558	-40.2	2,257	124.5
러시아	740	2.4	886	19.7	771	-13.0	417	-10.6
말레이시아	174	144.0	710	308.0	663	-6.6	1,438	442.2
베트남	11	-	60	445.5	427	611.7	101	-57.5

<보고서>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5년 ‘갑’국의 맥주 수출액이 맥주 수출을 시작한 199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6년 상반기도 역대 동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맥주 수출 총액은 약 8천 4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5.4 % 증가하였다. 2013년 대비 2015년 맥주 수출 총액은 16.9 % 증가하여, 같은 기간 ‘갑’국 전체 수출액이 5.9 % 감소한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2016년 상반기 맥주 수출 총액은 약 4천 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7 % 증가하였다.

2015년 ‘갑’국의 주요 맥주 수출국은 일본(41.6 %), 중국(22.9 %), 이라크(8.6 %), 싱가포르(8.0 %), 미국(4.4 %) 순으로, 2012년부터 ‘갑’국의 맥주 수출액이 가장 큰 상대 국가는 일본이다. 2015년 일본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약 3천 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2 %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4년부터 중국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갑’국 맥주 수출 대상국 중 2위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베트남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2013년 대비 2015년에 약 39배로 증가하여 베트남이 새로운 맥주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 기>

- ㄱ. 1992 ~ 2012년 연도별 ‘갑’국의 연간 맥주 수출 총액
- ㄴ. 1992 ~ 2015년 연도별 ‘갑’국의 상반기 맥주 수출액
- ㄷ. 2015년 상반기 ‘갑’국의 국가별 맥주 수출액
- ㄹ. 2013 ~ 2015년 연도별 ‘갑’국의 전체 수출액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필요 형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2016년의 상반기의 정보,
2016년 상반기 전년대비 동기간이므로 2015년 상반기 정보

<관점의 적용>

2015년 상반기 ‘갑’국의 국가별 맥주 수출액은 이미 주어진 정보이다. → 보기 ㄷ 소거
②, ⑤번 선지 소거

2015년 ‘갑’국의 맥주 수출액이 맥주 수출을 시작한 199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필요한 정보 : 1992 ~ 2015년 연도별 ‘갑’국의 연간 맥주 수출 총액 = 보기 ㄱ

또한 2016년 상반기도 역대 동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필요한 정보 : 1992 ~ 2015년 연도별 ‘갑’국의 상반기 맥주 수출액 = 보기 ㄴ

‘2013년 대비 2015년 맥주 수출 총액은 16.9 % 증가하여, 같은 기간 ‘갑’국 전체 수출액이 5.9 % 감소한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 필요한 정보 : 2013 ~ 2015년 연도별 ‘갑’국의 전체 수출액 = 보기 ㄹ

답 : ④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2000 ~ 2013년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남성		여성		전체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2000	2,542	10.7	156	0.7	2,698	5.9
2001	2,870	11.9	199	0.8	3,069	6.3
2002	3,807	15.8	299	1.2	4,106	8.4
2003	4,400	18.2	340	1.4	4,740	9.8
2004	4,674	19.2	374	1.5	5,048	10.2
2005	4,289	17.6	387	1.6	4,676	9.6
2006	4,107	16.8	383	1.6	4,490	9.3
2007	4,305	17.5	396	1.6	4,701	9.5
2008	4,243	17.1	400	1.6	4,643	9.3
2009	4,010	16.1	420	1.7	4,430	8.9
2010	4,111	16.5	424	1.7	()	9.1
2011	3,996	15.9	497	2.0	4,493	9.0
2012	4,075	16.2	474	1.9	()	9.1
2013	3,955	15.6	521	2.1	4,476	8.9

-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2010년과 2012년의 전체 사망자 수는 같다.
 - ② 여성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 ③ 매년 남성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성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의 8배 이상이다.
 - ④ 남성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해의 전년대비 남성 사망자 수 증가율은 5 % 이상이다.
 - ⑤ 전체 사망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1년이 2003년보다 높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전체 사망자 수 = 남성 사망자 수 + 여성 사망자 수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2010년 = 4111+424 = 4535
2012년 = 4075+474 = 4549 → 옳지 않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같으면 사망자수가 같을까?)

보기 ② (단순 확인)
2011년→2012년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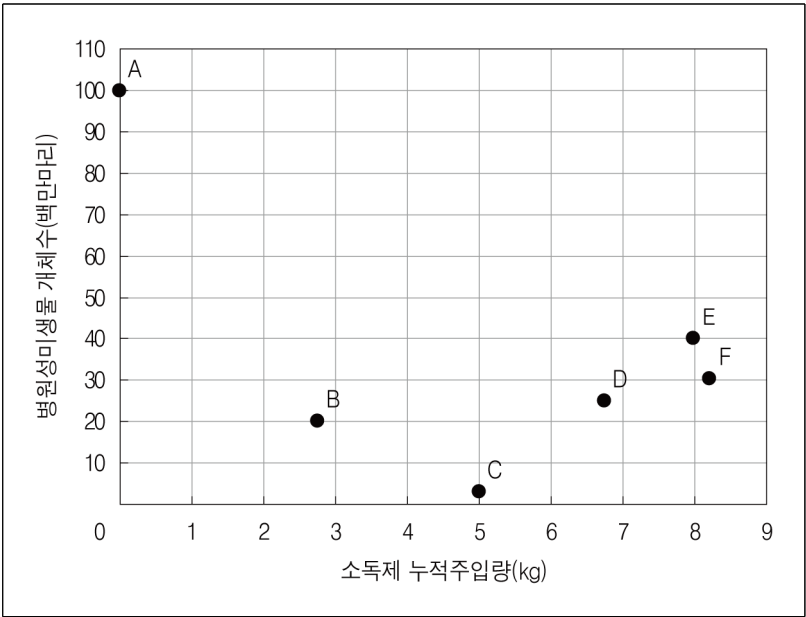
보기 ③ (가중평균의 응용-2)
2011년의 경우 $\frac{15.9}{2} < 8 \rightarrow$ 옳지 않다.

보기 ④ (올을올-2)
남성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해 = 2004년
 $\frac{4674}{4400} = \frac{4200 + 474}{4000 + 400} > 105 \rightarrow$ 5% 이상 증가하였다.

답 : ④

문 13. 다음 <그림>은 ‘갑’소독제 소독실험에서 소독제 누적주입량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실험정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소독제 누적주입량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개체수 변화



<실험정보>

- 이 실험은 1회 시행한 단일 실험임.
- 실험 시작시점(A)에서 측정한 값과, 이후 5시간 동안 소독제를 주입하면서 매 1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순서대로 B, C, D, E, F라고 하고 각 시점에서 측정한 값을 표시하였음.
- 소독효율(마리/kg) =
$$\frac{\text{시작시점(A) 병원성미생물 개체수} - \text{측정시점 병원성미생물 개체수}}{\text{측정시점의 소독제 누적주입량}}$$
- 구간 소독속도(마리/시간) =
$$\frac{\text{구간의 시작시점 병원성미생물 개체수} - \text{구간의 종료시점 병원성미생물 개체수}}{\text{두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보 기>

- ㄱ. 실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소독효율이 가장 높다.
- ㄴ. 소독효율은 F가 D보다 낮다.
- ㄷ. 구간 소독속도는 B ~ C 구간이 E ~ F 구간보다 낮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ㄴ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A시점을 시작으로 1시간마다 측정 했다.

소독효율 =
$$\frac{\text{시작지점} - \text{측정지점}}{\text{소독제 누적주입량}} = \frac{\Delta y}{\Delta x} = \text{기울기}$$

구간 소독속도 =
$$\frac{\text{구간시작시점} - \text{구간종료시점}}{\text{측정시간}} = \frac{\Delta y}{\text{측정시간}}$$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시간이 경과한 시점 = C

C기울기보다는 B점의 기울기다 더 크다. → 옳지 않다.

(※ A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2시간 후가 B라고 생각하게 만든 함정이다.)

①,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F의 기울기가가 D의 기울기보다 낮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B~C와 E~F보다 걸린 시간이 1시간이므로, 높이만 확인하자

B~C의 높이가 E~F의 높이보다 높다. → 옳지않다.

④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4. 다음 <표>는 2006 ~ 2012년 ‘갑’국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및 전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및 전시 현황
(단위 : 건, 개)

연도	전시건수		국외반출 허가 문화재 수량		
	국가별 전시건수 (국가: 건수)	계	지정문화재 (문화재 종류: 개수)	비지정 문화재	계
2006	일본: 6, 중국: 1, 영국: 1, 프랑스: 1, 호주: 1	10	국보: 3, 보물: 4, 시도지정문화재: 1	796	804
2007	일본: 10, 미국: 5, 그리스: 1, 체코: 1, 중국: 1	18	국보: 18, 보물: 3, 시도지정문화재: 1	902	924
2008	일본: 5, 미국: 3, 벨기에: 1, 영국: 1	10	국보: 5, 보물: 10	315	330
2009	일본: 9, 미국: 8, 중국: 3, 이탈리아: 3, 프랑스: 2, 영국: 2, 독일: 2, 포르투갈: 1, 네덜란드: 1, 체코: 1, 러시아: 1	33	국보: 2, 보물: 13	1,399	1,414
2010	일본: 9, 미국: 5, 영국: 2, 러시아: 2, 중국: 1, 벨기에: 1, 이탈리아: 1, 프랑스: 1, 스페인: 1, 브라질: 1	24	국보: 3, 보물: 11	1,311	1,325
2011	미국: 3, 일본: 2, 호주: 2, 중국: 1, 타이완: 1	9	국보: 4, 보물: 12	733	749
2012	미국: 6, 중국: 5, 일본: 5, 영국: 2, 브라질: 1, 독일: 1, 러시아: 1	21	국보: 4, 보물: 9	1,430	1,443

- ※ 1)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시도지정문화재만으로 구성됨.
- 2) 동일년도에 두 번 이상 전시된 국외반출 허가 문화재는 없음.
- ① 연도별 국외반출 허가 문화재 수량 중 지정문화재 수량의 비중이 가장 큰 해는 2011년이다.
- ② 2007년 이후, 연도별 전시건수 중 미국 전시건수 비중이 가장 작은 해에는 프랑스에서도 전시가 있었다.
- ③ 국가별 전시건수의 합이 10건 이상인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이다.
- ④ 보물인 국외반출 허가 지정문화재의 수량이 가장 많은 해는 전시건 당 국외반출 허가 문화재 수량이 가장 많은 해와 동일하다.
- ⑤ 2009년 이후, 연도별 전시건수가 많을수록 국외반출 허가 문화재 수량도 많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지정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 계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비중)

지정문화재 비중 가장 크다. = 비지정문화재 비중 가장 작다.

→ 2011년의 비지정문화재 비중 = $\frac{796}{804}$

2012년의 비지정문화재 비중 = $\frac{902}{924}$ → 2011년보다 작다.

→ 옳지 않다.

(※ 안보인다면 가공해서 보자)

보기 ②

미국의 전시건수 비중이 가장 작은 해 = 2010년 $\frac{5}{24}$

프랑스의 전시건수가 존재한다. → 옳다.

(※ 미국 전시건수 비중이 가장 작은해를 찾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 : ②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4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09 ~ 2013년 4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 천명)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총인구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009	15,693	14,492	49,194	31.9
2010	18,258	16,125	49,346	()
2011	19,498	16,404	49,740	39.2
2012	19,670	16,630	50,051	39.3
2013	22,310	19,774	50,248	44.4

<표 2> 2013년 4대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

구분 범죄 유형	발생건수	검거건수
강도	5,753	5,481
살인	132	122
절도	14,778	12,525
방화	1,647	1,646
계	22,310	19,774

- ①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 ② 2010년 이후, 전년대비 4대 범죄 발생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연도와 전년대비 4대 범죄 검거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동일하다.
- ③ 2013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이 가장 낮은 범죄 유형의 발생건수는 해당 연도 4대 범죄 발생건수의 60 % 이상이다.
- ④ 4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매년 80 % 이상이다.
- ⑤ 2013년 강도와 살인 발생건수의 합이 4대 범죄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강도와 살인 검거건수의 합이 4대 범죄 검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문제 유형>

-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 누적 승점
- 승리시 승점 3점, 패배시 승점 0점, 무승부시 승점 1점

<관점의 적용>

- 보기 ① (가중평균의 응용-2)
-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 $\frac{\text{발생건수}}{\text{인구}}$
- 2009년과 2010년의 비교 $\frac{18258}{4934} = \frac{15950 + 2308}{5000 - 66} > 3.19$
- 2011년과 2010년의 비교 $\frac{18258}{4934} = \frac{19600 - 1342}{5000 - 66}$
- $\frac{1342}{66} > 39.2$ 이므로, 2010년은 2011년보다 작다.
- 옳다.
- 보기 ② (올을올-1)
- 발생건수의 경우 2012년에 증가폭이 다른년도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증가율 역시 가장 작다.
- 2012년의 검거건수 역시도 그러하다. → 옳다.
- 보기 ③ (후보군)
-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이다.
- 절도의 경우 $\frac{14778}{22310} = \frac{12000 + 2778}{20000 + 2310} > 60\% \rightarrow$ 옳다.
- (※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가장 낮은 범죄를 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보기 ④ (가중평균의 응용-2)
- 모두 80%이상이다. → 옳다.

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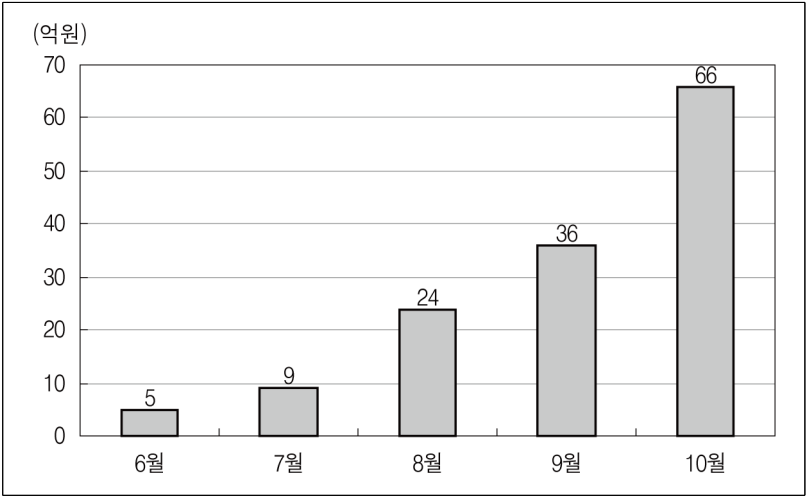
문 16. 다음 <표>와 <그림>은 2013년 ‘갑’국의 자동차 매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3년 10월 월매출액 상위 10개 자동차의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자동차	월매출액		
			시장점유율	전월대비 증가율
1	A	1,139	34.3	60
2	B	1,097	33.0	40
3	C	285	8.6	50
4	D	196	5.9	50
5	E	154	4.6	40
6	F	149	4.5	20
7	G	138	4.2	50
8	H	40	1.2	30
9	I	30	0.9	150
10	J	27	0.8	40

※ 시장점유율(%) = $\frac{\text{해당 자동차 월매출액}}{\text{전체 자동차 월매출 총액}} \times 100$

<그림> 2013년 I 자동차 누적매출액



※ 월매출액은 해당 월 말에 집계됨.

- ① 2013년 9월 C 자동차의 월매출액은 200억원 이상이다.
- ② 2013년 10월 월매출액 상위 5개 자동차의 순위는 전월과 동일하다.
- ③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 중 I 자동차의 월매출액이 가장 큰 달은 9월이다.
- ④ 2013년 10월 월매출액 상위 5개 자동차의 10월 월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80 % 이하이다.
- ⑤ 2013년 10월 ‘갑’국의 전체 자동차 매출액 총액은 4,000억원 이하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시장점유율의 분모동일방향은 ↓이다.

<표>의 자동차 I의 정보는 <그림>의 자동차 I와 동일하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폭과 울)

$\frac{285}{1.5} < 200 \rightarrow 200\text{억 이하이다.}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보기 ② (폭과 울)

2013년 9월 E의 경우 $\frac{154}{1.4}$, F의 경우 $\frac{149}{1.2}$ F가 더높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단순 확인)

월 매출액 차이가 가장 큰 것은 8월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④ (총합)

$34.3+33.0+8.6+5.9+4.6+4.5+1.2+0.9+0.8 = 93.8\%$
80% 이상이다. → 옳지 않다.

답 : ⑤

문 17. 식물학자 ‘갑’은 2016년 2월 14일 A지역에 위치한 B지점에 X식물을 파종하였다. 다음 <조건>과 <표>를 근거로 산정한 X식물의 발아예정일로 옳은 것은?

- <조 건>

 - A지역 기온측정 기준점의 고도는 해발 110m이고, B지점의 고도는 해발 710m이다.
 - A지역의 날씨는 지점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기온은 고도에 의해서 변한다. 지점의 고도가 1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1℃씩 낮아진다.
 - 발아예정일 산정방법
 - 1) 파종 후, 일 최고기온이 3℃ 이상인 날이 연속 3일 이상 존재한다.
 - 2) 1)을 만족한 날 이후, 일 최고기온이 0℃ 이하인 날이 1일 이상 존재한다.
 - 3) 2)를 만족한 날 이후, 일 최고기온이 3℃ 이상인 날이 존재한다.
 - 4) 발아예정일은 3)을 만족한 최초일에 6일을 더한 날이다. 단, 1)을 만족한 최초일 다음날부터 3)을 만족한 최초일 사이에 일 최고기온이 0℃ 이상이면서 비가 온 날이 있다면 그 날 수만큼 발아예정일이 앞당겨진다.

<표> 2016년 A지역의 날씨 및 기온측정 기준점의 일 최고기온

날짜	일 최고기온 (℃)	날씨	날짜	일 최고기온 (℃)	날씨
2월 15일	3.8	맑음	3월 6일	7.9	맑음
2월 16일	3.3	맑음	3월 7일	8.0	비
2월 17일	2.7	흐림	3월 8일	5.8	비
2월 18일	4.0	맑음	3월 9일	6.5	맑음
2월 19일	4.9	흐림	3월 10일	5.3	흐림
2월 20일	5.2	비	3월 11일	4.8	맑음
2월 21일	8.4	맑음	3월 12일	6.8	맑음
2월 22일	9.1	맑음	3월 13일	7.7	흐림
2월 23일	10.1	맑음	3월 14일	8.7	맑음
2월 24일	8.9	흐림	3월 15일	8.5	비
2월 25일	6.2	비	3월 16일	6.1	흐림
2월 26일	3.8	흐림	3월 17일	5.6	맑음
2월 27일	0.2	흐림	3월 18일	5.7	비
2월 28일	0.5	맑음	3월 19일	6.2	흐림
2월 29일	7.6	맑음	3월 20일	7.3	맑음
3월 1일	7.8	맑음	3월 21일	7.9	맑음
3월 2일	9.6	맑음	3월 22일	8.6	흐림
3월 3일	10.7	흐림	3월 23일	9.9	맑음
3월 4일	10.9	맑음	3월 24일	8.2	흐림
3월 5일	9.2	흐림	3월 25일	11.8	맑음

- ① 2016년 3월 7일

② 2016년 3월 8일

③ 2016년 3월 19일

④ 2016년 3월 27일

⑤ 2016년 3월 29일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B지점에 파종을 하였다.
 A지점과 B지점의 고도차이는 600m
 10m 높아질때마다 0.1℃ 낮아짐
 <표> A지점의 온도측정

<관점의 적용>

A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B지점의 온도는 A지점보다 6℃가 낮다.
 발아 예정일 산정방법에 따르면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는 3월 4일
 2)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는 3월 8일
 3)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는 3월23일
 4)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는 3월 7일,3월15일
 → 즉 3월23일부터 4일후에 발아 = 3월 27일

답 : ④

문 18. 다음 <표>는 2013 ~ 2015년 기업역량개선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선정 업체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산업별 선정 업체 수

(단위 : 개)

연도 \ 산업	엔지니어링	바이오	디자인	미디어
2013	3	2	3	6
2014	2	2	2	6
2015	2	5	5	3

※ 기업역량개선사업은 2013년 시작되었고, 전 기간 동안 중복 선정된 업체는 없음.

<표 2> 선정 업체의 연도별 과제 이행 실적 건수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전체
과제 이행 실적	12	24	19	55

※ 선정 업체가 이행하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음.

<표 3> 선정 업체의 3년 간(2013 ~ 2015년) 과제 이행 실적별 분포

(단위 : 개)

과제 이행 실적	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	전체
업체 수	15	11	4	9	1	1	41

<보 기>

- ㄱ. 매년 선정 업체 중 디자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 ㄴ. 2013년 선정 업체 중 당해 연도 과제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는 3개 이상이다.
- ㄷ. 산업별 선정 업체 수의 3년 간 합이 많은 산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미디어, 디자인, 바이오, 엔지니어링 순이다.
- ㄹ. 전체 선정 업체 중 3년 간 과제 이행 실적 건수 상위 15개 업체의 과제 이행 실적 건수는 전체 과제 이행 실적 건수의 80 %를 차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의 업체가 <표2>의 과제를 이행했다.
<표1>의 업체가 <표3>에 적힌 것처럼 과제를 이행했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frac{\text{디자인}}{\text{전체}} \rightarrow \frac{\text{디자인}}{\text{전체} - \text{디자인}} = \frac{\text{디자인}}{\text{엔지니어링} + \text{바이오} + \text{미디어}}$$

2013년 = $\frac{3}{3+2+6}$ 2014년 = $\frac{2}{2+2+6}$ →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풀지 않아도 되는 보기 ㄷ

보기 ㄴ (극단으로)

2013년 선정업체 중 이행실적이 없는 업체를 가장 적게 만들자
→ 선정업체들이 과제 이행을 최소로 해야한다

표1 2013년 선정업체 수 = 3 + 2 + 3 + 6 = 14개

표2 2013년 과제 이행 실적 수 = 12건

표3 업체들의 과제 이행 실적 수

1건 → 11개 업체, 2건 → 4개 업체

1건은 최대 11개의 업체이기에,

1건 10개 업체와 2건 1개 업체일 때, 과제이행이 없는 업체의 숫자가 최소가 된다. 즉, 3개 이상의 업체는 과제이행을 안했다.
→ 옳다.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ㄹ (단순 확인)

상위 15개의 업체

표3 5건 1개, 4건 1개, 3건 9개, 2건 4개

총 과제 이행수 = 44건

$\frac{44}{55}=80\%$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⑤

※ 다음 <표>는 훈련대상별 훈련성과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표 1> 훈련대상별 훈련 실시인원과 자격증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훈련 실시인원	9,013	3,005	7,308	3,184	1,301
자격증 취득인원	4,124	1,230	3,174	487	617

- ※ 1) 훈련대상은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지역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새터민’으로 구성됨.
2) 훈련대상별 훈련 실시인원의 중복은 없음.

<표 2> 훈련대상별 자격증 취득인원의 성·연령대·최종학력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성	남	45	63	44	58	40
	여	55	37	56	42	60
연령대	20대	5	17	18	8	21
	30대	13	32	21	24	25
	40대	27	27	27	22	18
	50대	45	13	23	31	22
	60대 이상	10	11	11	15	14
최종학력	중졸이하	4	8	12	32	34
	고졸	23	25	18	28	23
	전문대졸	19	28	31	16	27
	대졸	38	21	23	15	14
	대학원졸	16	18	16	9	2

-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3> 훈련대상·최종학력별 훈련 실시인원 및 자격증 취득률
(단위 : 명, %)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전체
최종 학력	중졸이하	1,498 (11)	547 (18)	865 (44)	1,299 (12)	499 (42)	4,708 (21)
	고졸	1,790 (53)	854 (36)	1,099 (52)	852 (16)	473 (30)	5,068 (42)
	전문대졸	2,528 (31)	861 (40)	1,789 (55)	779 (10)	203 (82)	6,160 (38)
	대졸	2,305 (68)	497 (52)	2,808 (26)	203 (36)	108 (80)	5,921 (46)
	대학원졸	892 (74)	246 (90)	747 (68)	51 (86)	18 (70)	1,954 (74)

- ※ 1) 자격증 취득률(%) = $\frac{\text{자격증 취득 인원}}{\text{훈련 실시 인원}} \times 100$
2) () 안 수치는 자격증 취득률을 의미함.
3)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19.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졸 전직실업자인 자격증 취득인원은 전문대졸 지역실업자인 자격증 취득인원보다 적다.
② 남성 자격증 취득인원은 훈련대상 중 신규실업자가 가장 많다.
③ 신규실업자의 최종학력별 자격증 취득률은 고졸이 대졸보다 높다.
④ 영세자영업자의 자격증 취득률은 연령대 중 50대가 가장 낮다.
⑤ 전체 대졸 자격증 취득인원 대비 훈련대상별 대졸 자격증 취득인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훈련대상은 새터민이다.

<문제 유형>

- 일반 형(①~⑤형)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 <표2>의 분모는 <표1>의 자격증 취득인원이다.
<표2>의 분모 동일방향은 ↓
<표3>의 합계는 <표1>의 훈련 실시인원이다.

<관점의 적용>

- 보기 ① (단순 확인)
고졸 전직 실업자 자격증 취득인원 = 4124 × 23%
전문대졸 지역실업자 자격증 취득인원 = 3174 × 31%
고졸 전직 실업자가 더 적다.
(※만약에 어렵다면 <표3>을 이용하자)

답 : ①

※ 다음 <표>는 훈련대상별 훈련성과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시오. [문 19 ~ 문 20]

<표 1> 훈련대상별 훈련 실시인원과 자격증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훈련 실시인원	9,013	3,005	7,308	3,184	1,301
자격증취득인원	4,124	1,230	3,174	487	617

- ※ 1) 훈련대상은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지역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새터민'으로 구성됨.
2) 훈련대상별 훈련 실시인원의 중복은 없음.

<표 2> 훈련대상별 자격증취득인원의 성·연령대·최종학력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성					
남	45	63	44	58	40
여	55	37	56	42	60
연령대					
20대	5	17	18	8	21
30대	13	32	21	24	25
40대	27	27	27	22	18
50대	45	13	23	31	22
60대 이상	10	11	11	15	14
최종학력					
중졸이하	4	8	12	32	34
고졸	23	25	18	28	23
전문대졸	19	28	31	16	27
대졸	38	21	23	15	14
대학원졸	16	18	16	9	2

-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3> 훈련대상·최종학력별 훈련 실시인원 및 자격증취득률
(단위 : 명, %)

구분 \ 훈련대상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지역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전체
최종학력						
중졸이하	1,498 (11)	547 (18)	865 (44)	1,299 (12)	499 (42)	4,708 (21)
고졸	1,790 (53)	854 (36)	1,099 (52)	852 (16)	473 (30)	5,068 (42)
전문대졸	2,528 (31)	861 (40)	1,789 (55)	779 (10)	203 (82)	6,160 (38)
대졸	2,305 (68)	497 (52)	2,808 (26)	203 (36)	108 (80)	5,921 (46)
대학원졸	892 (74)	246 (90)	747 (68)	51 (86)	18 (70)	1,954 (74)

- ※ 1) 자격증취득률(%) = $\frac{\text{자격증취득인원}}{\text{훈련 실시인원}} \times 100$
2) () 안 수치는 자격증취득률을 의미함.
3)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20. 위 <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훈련대상별 자격증취득인원

ㄴ. 훈련대상·성별 자격증취득률

ㄷ. 중졸이하 자격증취득인원의 훈련대상별 구성비

ㄹ. 새터민 자격증취득인원의 연령대별 누적 구성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표2>의 분모는 <표1>의 자격증 취득인원이다.

<표2>의 분모동일방향은 ↓

<표3>의 합계는 <표1>의 훈련실시인원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ㄴ

→ 제목은 취득률인데, 안의 정보는 구성비이다.

→ 옳지 않다.

보기 ㄷ

→ 분모동일방향의 정보가 아니다. 고로 비교 불가하다.

→ 옳지 않다.

답 : ③

<표 1> 전체 수출액 대비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품목	2013	2014	2015
가전	1.83	2.35	2.12
무선통신기기	6.49	6.42	7.28
반도체	8.31	10.04	11.01
석유제품	9.31	8.88	6.09
석유화학	8.15	8.35	7.11
선박류	10.29	7.09	7.75
섬유류	2.86	2.81	2.74
일반기계	8.31	8.49	8.89
자동차	8.16	8.54	8.69
자동차부품	4.09	4.50	4.68
철강제품	6.94	6.22	5.74
컴퓨터	2.25	2.12	2.28
평판디스플레이	5.22	4.59	4.24
계	82.21	80.40	78.62

연도 품목	2013	2014	2015
가전	2.95	3.63	2.94
무선통신기기	6.77	5.68	5.82
반도체	8.33	9.39	8.84
석유제품	5.60	5.20	5.18
석유화학	8.63	9.12	8.42
선박류	24.55	22.45	21.21
섬유류	2.12	1.96	1.89
일반기계	3.19	3.25	3.27
자동차	5.34	5.21	4.82
자동차부품	5.55	5.75	5.50
철강제품	5.47	5.44	5.33
컴퓨터	2.23	2.11	2.25
평판디스플레이	23.23	21.49	18.50

① $\neg$
② $\perp$
③ $\neg, \perp$
④ $\perp, \sqsubset$
⑤ $\neg, \perp, \sqsub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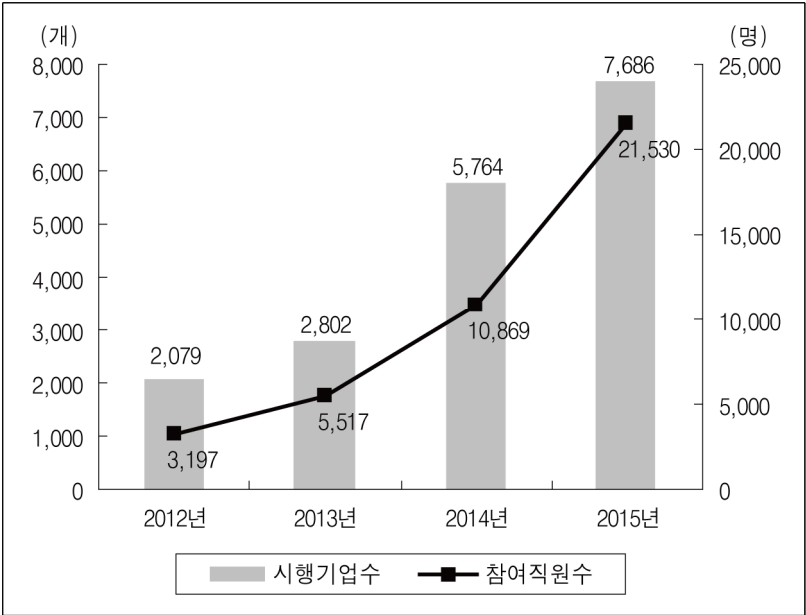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표1>의 분모동일 방향 ↓
<표2>는 분모동일 방향 X

답 : ③

문 22. 다음 <그림>은 2012 ~ 2015년 ‘갑’국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제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남성육아휴직제 시행기업수 및 참여직원수



- ① 2013년 이후 전년보다 참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와 시행기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동일하다.
- ② 2015년 남성육아휴직제 참여직원수는 2012년의 7배 이상이다.
- ③ 시행기업당 참여직원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 ④ 2013년 대비 2015년 시행기업수의 증가율은 참여직원수의 증가율보다 높다.
- ⑤ 2012 ~ 2015년 참여직원수 연간 증가인원의 평균은 6,000명 이하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y축 중 ←의 값은 시행기업수
y축 중 →의 값은 참여직원수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참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 = 2015년
 시행기업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 = 2014년
 → 옳지 않다.

보기 ② (가중평균의 응용-2)
 $\frac{21530}{3197} = \frac{21000 + 530}{3000 + 197} < 7$, 7배이하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단순 확인)
 가시적으로 2015년이다. → 옳다.

답 : ③

문 23. 다음 <표>는 질병진단키트 A ~ D의 임상실험 결과 자료이다. <표>와 <정의>에 근거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질병진단키트 A ~ D의 임상실험 결과
(단위 : 명)

A			B		
판정 \ 질병	있음	없음	판정 \ 질병	있음	없음
양성	100	20	양성	80	40
음성	20	100	음성	40	80

C			D		
판정 \ 질병	있음	없음	판정 \ 질병	있음	없음
양성	80	30	양성	80	20
음성	30	100	음성	20	120

※ 질병진단키트 당 피실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임.

<정 의>

- 민감도 : 질병이 있는 피실험자 중 임상실험 결과에서 양성 판정된 피실험자의 비율
- 특이도 : 질병이 없는 피실험자 중 임상실험 결과에서 음성 판정된 피실험자의 비율
- 양성 예측도 : 임상실험 결과 양성 판정된 피실험자 중 질병이 있는 피실험자의 비율
- 음성 예측도 : 임상실험 결과 음성 판정된 피실험자 중 질병이 없는 피실험자의 비율

<보 기>

- ㄱ.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질병진단키트는 A이다.
- ㄴ. 특이도가 가장 높은 질병진단키트는 B이다.
- ㄷ. 질병진단키트 C의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는 동일하다.
- ㄹ. 질병진단키트 D의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피실험자의 숫자는 총 240명이다.

$$\text{민감도} =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질병있음}}$$

$$\text{특이도} =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질병없음}}$$

$$\text{양성예측도} =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양성판정}}$$

$$\text{음성예측도} =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음성판정}}$$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text{민감도} =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질병있음}} \rightarrow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질병있음} \cap \text{음성판정}}$$

$$A(\frac{100}{20})\text{가 가장 크다} \rightarrow \text{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계산이 아닌 가공)

$$\text{양성예측도} =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양성판정}} \rightarrow \frac{\text{질병 있음} \cap \text{양성판정}}{\text{질병없음} \cap \text{양성판정}}$$

$$\text{음성예측도} =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음성판정}} \rightarrow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질병 있음} \cap \text{음성판정}}$$

$$D\text{의 경우 } \frac{80}{20}, \frac{120}{20} \text{ 일치하지 않는다.}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text{특이도} =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질병없음}} \rightarrow \frac{\text{질병 없음} \cap \text{음성판정}}{\text{질병없음} \cap \text{양성판정}}$$

$$B(\frac{80}{40})\text{ 보다 A가 더크다}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24. 다음 <표>는 결함이 있는 베어링 610개의 추정 결함원인과 실제 결함원인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베어링의 추정 결함원인과 실제 결함원인

(단위 : 개)

추정 결함 원인 실제 결함원인	불균형 결함	내륜결함	외륜결함	정렬불량 결함	불결함	합
불균형결함	87	9	14	6	14	130
내륜결함	12	90	11	6	15	134
외륜결함	6	8	92	14	4	124
정렬불량결함	5	2	5	75	16	103
불결함	5	7	11	18	78	119
계	115	116	133	119	127	610

- ※ 1) 전체인식률 = $\frac{\text{추정 결함원인과 실제 결함원인이 동일한 베어링의 개수}}{\text{결함이 있는 베어링의 개수}}$
2) 인식률 = $\frac{\text{추정 결함원인과 실제 결함원인이 동일한 베어링의 개수}}{\text{추정 결함원인에 해당되는 베어링의 개수}}$
3) 오류율 = 1 - 인식률

<보 기>

- ㄱ. 전체인식률은 0.8 이상이다.
ㄴ. ‘내륜결함’ 오류율은 ‘외륜결함’ 오류율보다 낮다.
ㄷ. ‘불균형결함’ 인식률은 ‘외륜결함’ 인식률보다 낮다.
ㄹ. 실제 결함원인이 ‘정렬불량결함’인 베어링 중에서, 추정 결함원인이 ‘불균형결함’인 베어링은 추정 결함원인이 ‘불결함’인 베어링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합과 계가 주어짐

인식률 + 오류율 = 1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frac{87 + 90 + 92 + 75 + 78}{610} = \frac{80 + 80 + 80 + 80 + 80 + 88 \downarrow}{100 + 100 + 100 + 100 + 100 + 110} < 80\%$$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풀지 않아도 되는 보기 ㄴ

보기 ㄷ (비중)

$$\text{불균형결함의 인식률} = \frac{87}{115}$$

$$\text{외륜결함의 인식률} = \frac{92}{133}$$

$$\frac{87}{115} > \frac{92}{133}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 잘 안보인다면 가공하자)

③, ⑤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25. 다음 <표>는 학생 ‘갑’ ~ ‘정’의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순위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순위를 산정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 ~ ‘정’의 시험 성적

(단위 : 점)

학생 \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갑	75	85	90	97
을	82	83	79	81
병	95	75	75	85
정	89	70	91	90

<순위산정방식>

- A방식 : 4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위로 하되, 4개 과목의 총점이 동일한 학생의 경우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 B방식 : 과목별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위로 하되, 과목별 등수의 합이 동일한 학생의 경우 A방식에 따라 산정한 순위가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 C방식 : 80점 이상인 과목의 수가 많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위로 하되, 80점 이상인 과목의 수가 동일한 학생의 경우 A방식에 따라 산정한 순위가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보 기>

- ㄱ. A방식과 B방식으로 산정한 ‘병’의 순위는 동일하다.
- ㄴ. C방식으로 산정한 ‘정’의 순위는 2위이다.
- ㄷ. ‘정’의 과학점수만 95점으로 변경된다면, B방식으로 산정한 ‘갑’의 순위는 2위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ㄴ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C방식의 기준점은 80점
→공통과 차이를 이용하자

학생 \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총합
갑	점수	-5	5	10	17	27
	순위	4	1	2	1	8
을	점수	2	3	-1	1	5
	순위	3	2	3	4	12
병	점수	15	-5	-5	5	10
	순위	1	3	4	3	11
정	점수	9	-10	11	10	20
	순위	2	4	1	2	9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A방식의 경우 병의 순위 = 3등

B방식의 경우 병의 순위 = 3등

→ 옳다.

②, ③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C방식으로 산정 한 정의 순위

정의 경우 80이상인 것이 3개,

갑,을,정이 동점 이때는 A의 순위를 따라 가므로, 정은 2위 옳다.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과학점수가 95점으로 변해도 순위의 변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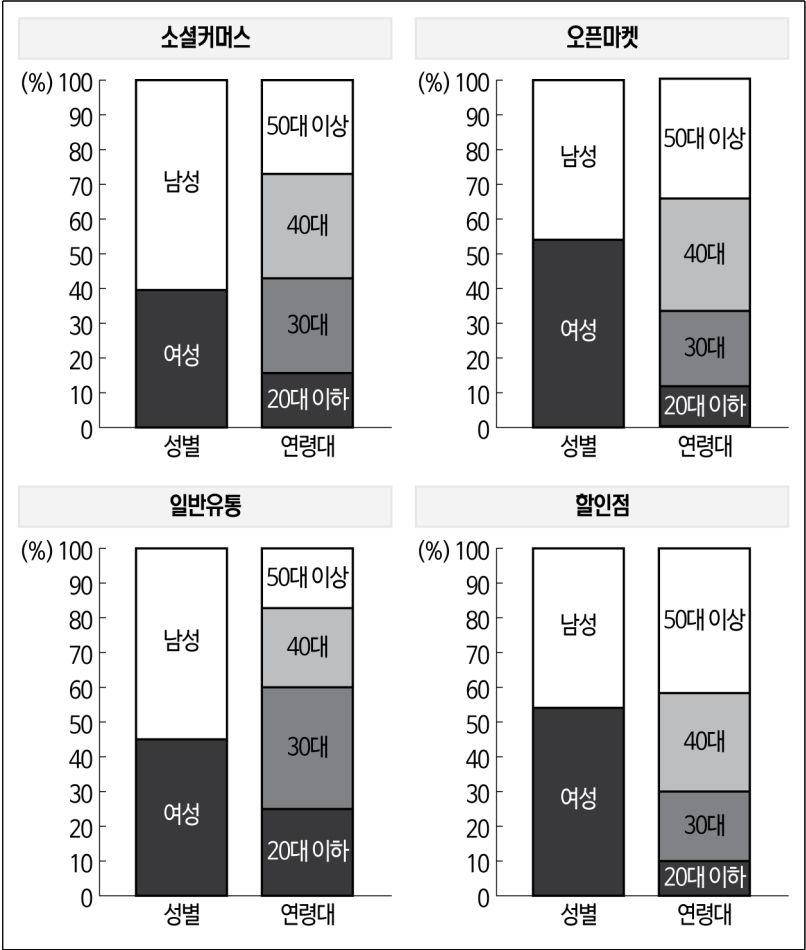
→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26. 다음 <그림>은 ‘갑’국 4대 유통업체의 성별, 연령대별 구매액 비중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갑’국 4대 유통업체의 성별, 연령대별 구매액 비중



※ 유통업체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일반유통, 할인점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유통업체별 전체 구매액 중 50대 이상 연령대의 구매액 비중이 가장 큰 유통업체는 할인점이다.
- ㄴ. 유통업체별 전체 구매액 중 여성의 구매액 비중이 남성보다 큰 유통업체 각각에서는 40세 이상의 구매액 비중이 60 % 이상이다.
- ㄷ. 4대 유통업체 각각에서 50대 이상 연령대의 구매액 비중은 20대 이하보다 크다.
- ㄹ. 유통업체별 전체 구매액 중 40세 미만의 구매액 비중이 50 % 미만인 유통업체에서는 여성의 구매액 비중이 남성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분모동일방향은 각각의 업체에서만 분모동일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가시적으로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가정형)

40대 미만의 구매액 비중이 50%미만인 유통업체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할인점

소셜 커머스의 경우 남성 비중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40대 미만에는 40대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일반유통의 경우 20대이하가 50대이상보다 많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27. 다음 <표>는 A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갑’사의 1 ~ 3주차 A제품 주문량 및 B부품 구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조건>에 근거하여 매 주 토요일 판매완료 후 남게 되는 A제품의 재고량을 주차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A제품 주문량 및 B부품 구매량
(단위 : 개)

구분 \ 주	1주차	2주차	3주차
A제품 주문량	0	200	450
B부품 구매량	500	900	1,100

- ※ 1) 1주차 시작 전 A제품과 B부품의 재고는 없음.
 2)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임.

<조 건>

- A제품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하고, A제품 1개 생산 시 B부품만 2개가 사용된다.
- B부품은 매주 일요일에 일괄구매하고, 그 다음 주 A제품 생산에 남김없이 모두 사용된다.
- 생산된 A제품은 매주 토요일에 해당주차 주문량만큼 즉시 판매되고, 남은 A제품은 이후 판매하기 위한 재고로 보유한다.

	1주차	2주차	3주차
①	0	50	0
②	0	50	50
③	50	50	50
④	250	0	0
⑤	250	50	50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한주의 시작은 월요일
 일요일의 A제품 재고량

<관점의 적용>

	1주차		
	월~금	토 (A제품 판매후)	일
A제품 재고	0	0	0
B부품 재고	0	0	500
	2주차		
	월~금	토 (A제품 판매후)	일
A제품 재고	250	50	50
B부품 재고	0	0	900
	3주차		
	월~금	토 (A제품 판매후)	일
A제품 재고	500	50	50
B부품 재고	0	0	1100

토요일에 판매후 남은 A제품의 제고는 0, 50, 50 이다.

답 : ②

문 28. 다음 <표>는 세조 재위기간 중 지역별 흉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세조 재위기간 중 지역별 흉년 현황

지역 재위년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강원	충청	경상	전라	흉년 지역 수
세조1	×	×	×	×	×	○	×	×	1
세조2	○	×	×	×	×	○	○	×	3
세조3	○	×	×	×	×	○	○	○	4
세조4	○	()	()	()	×	()	×	()	4
세조5	○	()	○	○	○	×	×	×	()
세조8	×	×	×	×	○	×	×	×	1
세조9	×	○	×	()	○	×	×	×	2
세조10	○	×	×	○	○	○	×	×	4
세조12	○	○	○	×	○	○	×	×	5
세조13	○	×	()	×	○	×	×	()	3
세조14	○	○	×	×	○	()	()	×	4
흉년 빈도	8	5	()	2	7	6	()	1	

※ 1) ○(×): 해당 재위년 해당 지역이 흉년임(흉년이 아님)을 의미함.
2) <표>에 제시되지 않은 재위년에는 흉년인 지역이 없음.

- ① 흉년 빈도가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은 평안이다.
- ② 흉년 지역 수는 세조5년이 세조4년보다 많다.
- ③ 경기, 황해, 강원 3개 지역의 흉년 빈도 합은 흉년 빈도 총합의 55 % 이상이다.
- ④ 충청의 흉년 빈도는 경상의 2배이다.
- ⑤ 흉년 지역 수가 5인 재위년의 횟수는 총 2번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에 빈칸이 존재한다.
합계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지역 재위년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강원	충청	경상	전라	흉년 지역 수
세조1	×	×	×	×	×	○	×	×	1
세조2	○	×	×	×	×	○	○	×	3
세조3	○	×	×	×	×	○	○	○	4
세조4	○	○	○	×	×	○	×	×	4
세조5	○	○	○	○	○	×	×	×	5
세조8	×	×	×	×	○	×	×	×	1
세조9	×	○	×	×	○	×	×	×	2
세조10	○	×	×	○	○	○	×	×	4
세조12	○	○	○	×	○	○	×	×	5
세조13	○	×	○	×	○	×	×	×	3
세조14	○	○	×	×	○	×	○	×	4
흉년 빈도	8	5	4	2	7	6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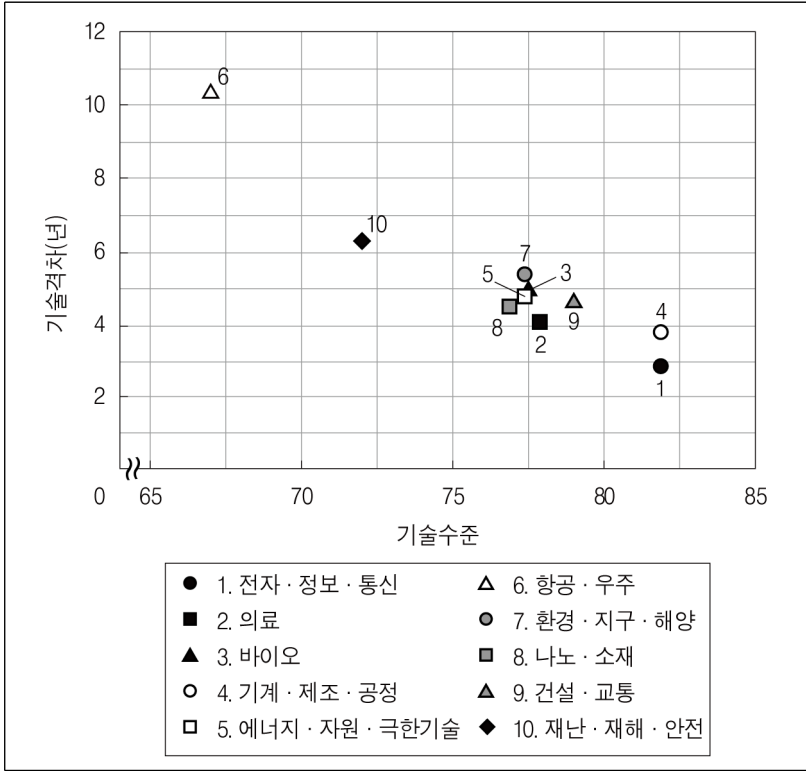
보기 ① (후보군)

평안의 경우 4개이고, 이것은 경기, 강원, 충청, 황해 이후 5번째 순위이다. → 옳지 않다.

답 : ①

문 29. 다음 <그림>과 <표>는 우리나라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과 기술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우리나라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 ※ 1) 기술수준은 비교대상국가(지역)의 기술 발전 정도를 100으로 볼 때 특정 국가(지역)의 해당 기술 발전 정도임.
 2) 기술격차는 특정국가(지역)가 비교대상국가(지역)의 기술 발전 정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임. 단, 음수의 경우 비교대상국가(지역)가 특정국가(지역)의 기술 발전 정도에 도달하는데 그 절댓값만큼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함.

<표> 10대 전략기술 분야별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단위 : 년)

분야 \ 기술격차	대(對)중국 기술격차	대(對)일본 기술격차	대(對)미국 기술격차	대(對)EU 기술격차
전자·정보·통신	-2.4	1.3	2.9	1.0
의료	-1.9	2.2	4.1	2.6
바이오	-2.5	3.1	5.0	3.5
기계·제조·공정	-2.3	2.7	3.8	2.9
에너지·자원·극한기술	-1.3	3.3	4.8	3.9
항공·우주	4.5	5.4	10.4	7.6
환경·지구·해양	-2.9	4.1	5.4	4.9
나노·소재	-1.2	3.4	4.5	2.8
건설·교통	-2.8	4.0	4.7	3.9
재난·재해·안전	-1.9	4.2	6.3	3.6

<보고서>

㉠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우리나라 10대 전략기술 분야 기술수준의 평균은 75 이하이고, 기술격차의 평균은 4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자·정보·통신과 기계·제조·공정 분야가 80 이상이고 항공·우주 분야는 70 미만이다. 기술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이고 기술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항공·우주 분야로 기술격차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EU에 비하여 분야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10.4년까지 뒤쳐져 있다.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기술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으며, 특히 환경·지구·해양 분야에서 2.9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EU와 비교했을 때 모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최고기술을 보유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기술 발전 정도는 모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쳐져 있으나, 전자·정보·통신,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의 분야에서는 EU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그림> x축에 생략이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가중평균의 응용-1)
 75를 기준으로 부족한것들을 넘치는 것이 채워 줄 수 있는가?
 → 충분하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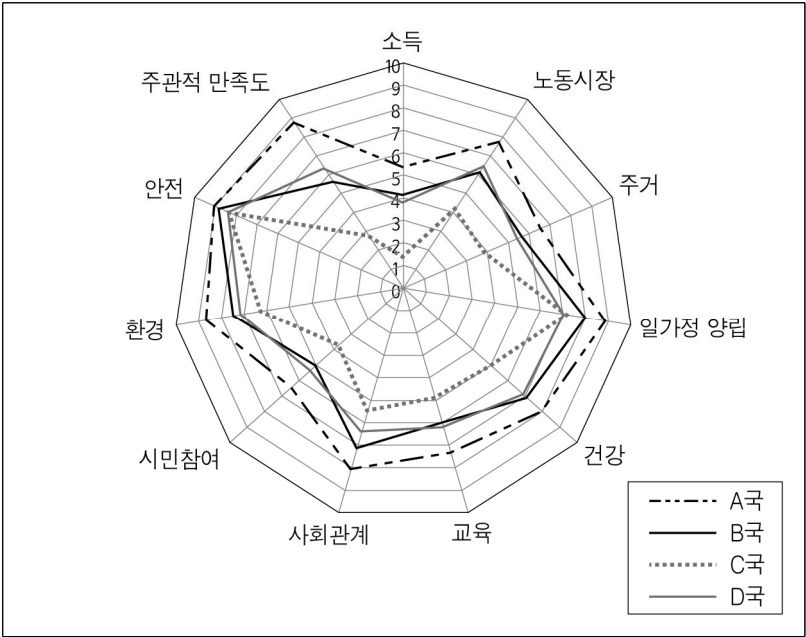
보기 ㄴ (단순 확인)
 전자정보통신(1)과 기계제조공정(4)은 80이상이다.
 항공우주(6)은 70미만이다. →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 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항공우주의 경우 오히려 한국이 4.5년 뒤쳐졌다. →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30. 다음 <그림>은 2013년 A ~ D국의 항목별 웰빙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013년 A ~ D국의 항목별 웰빙지수



※ 1) 웰빙지수는 항목별로 0 ~ 10으로 표시되고, 숫자가 클수록 지수가 높으며, 그래프의 0 ~ 10 사이 간격은 균등함.

2) $\text{종합웰빙지수} = \frac{\text{각 항목 웰빙지수의 합}}{\text{전체 항목수}}$

- ① A국의 종합웰빙지수는 7 이상이다.
- ② B국과 D국의 종합웰빙지수 차이는 1 미만이다.
- ③ D국의 웰빙지수가 B국보다 높은 항목의 수는 전체 항목 수의 50 % 미만이다.
- ④ A국과 C국에서 웰빙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동일하다.
- ⑤ A국과 C국의 웰빙지수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과 B국과 D국의 웰빙지수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동일하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text{종합웰빙지수} = \text{평균 값}$

<관점의 적용>

보기 ① (평균)

7점을 기준으로 부족한 것을 넘치는 것이 채워 줄 수있는가?
→ 그렇다. → 옳다.

보기 ② (평균)

B국과 D국의 값들의 차이가 1점을 넘는가?→ 그렇지 않다.
→ 옳다.

보기 ③ (단순확인)

D국이 B국보다 높은 항목 =
노동시장, 교육, 시민참여, 주관적 만족도, 총 11개중 4개 이므로 50%미만이다. → 옳다.

보기 ④ (단순확인)

둘다 소득이 가장 낮다. → 옳다.

답 : ⑤

문 31. 다음 <보고서>와 <표>는 2014년 A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고서> —

2014년 A국이 공여한 전체 공적개발원조액은 19억 1,430만 달러로 GDP 대비 0.13 %를 기록하였다. 공적개발원조액의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북아프리카 5.4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 %, 오세아니아.기타 아시아 32.4 %, 유럽 0.7 %, 중남미 7.5 %, 중앙아시아.남아시아 21.1 %, 기타 지역 12.9 %로 나타났다.

<표> 2014년 A국 공적개발원조 수원액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수원액
1	베트남	215
2	아프가니스탄	93
3	탄자니아	68
4	캄보디아	68
5	방글라데시	61
6	모잠비크	57
7	필리핀	55
8	스리랑카	52
9	에티오피아	35
10	인도네시아	34
계		738

— <보 기> —

ㄱ. 수원액 상위 10개국의 수원액 합은 A국 GDP의 0.04 % 이상이다.

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액은 수원액 상위 10개국의 수원액 합보다 크다.

ㄷ. ‘오세아니아.기타 아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액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남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액 합보다 크다.

ㄹ. 수원액 상위 10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원액 합은 베트남 수원액의 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보고서> 총액 = 19억 1430만 달러

<표> 계가 존재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상위 10개국의 합 = 738(백만달러) = 7.38억달러

19.14가 0.13%라면, 7.38은 0.04이상인가?

$19.14 : 0.13 = 7.38 : 0.04 \uparrow \rightarrow$ 옳다.

③, ④번 선지 소거 $\rightarrow$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ㄷ

보기 ㄷ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 = 32.4%

사하라이남 + 북아프리카 + 중남미 = $20+5.4+7.5 = 32.9\%$

$\rightarrow$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가 더 작다. $\rightarrow$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rightarrow$ 보기 ㄴ,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20%(사하라 이남)를 못넘을까?

$\frac{7.38}{19.14} > 20\% \rightarrow$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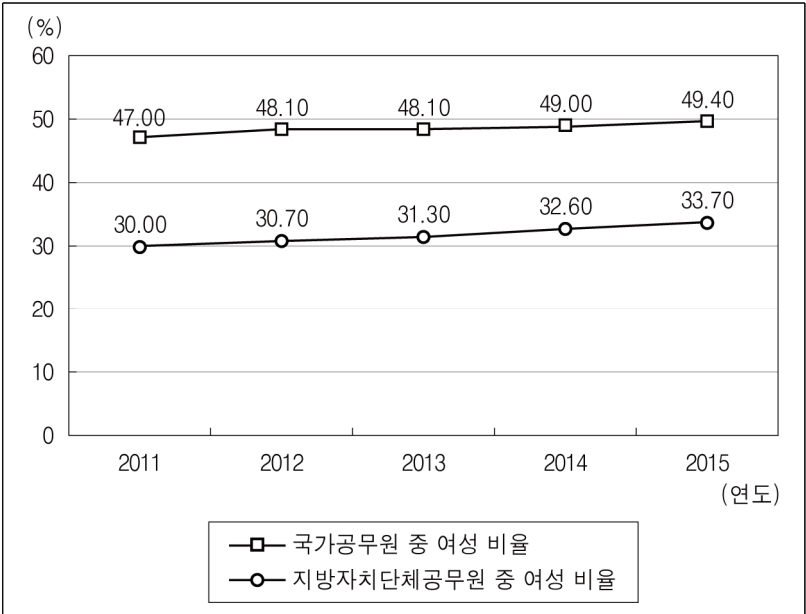
문 32. 다음 <표>와 <그림>은 2011 ~ 2015년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 공무원	621,313	622,424	621,823	634,051	637,65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958	284,273	287,220	289,837	296,193

<그림>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여성 비율



- ① 매년 국가공무원 중 여성 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여성 수의 3배 이상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여성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③ 매년 국가공무원 중 여성 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수보다 많다.
- ④ 국가공무원 중 남성 수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 ⑤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는 매년 감소한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의 분모는 <표>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국가공무원 중 여성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여성비율

지방공무원 중 여성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여성비율

국가공무원 수와 지방공무원 수는 2배 ↑ 차이,

국가공무원 여성비율과 지방공무원 여성비율은 1.5배 정도 차이

→ 즉 3배 ↑ 차이 → 옳다.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지방공무원 중 여성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여성비율

지방공무원은 매년 증가, 여성비율도 매년 증가

→ 옳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국가공무원 중 여성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여성비율

여성의 비율은 대략 50%정도이고,

국가공무원 수와 지방공무원 수는 2배 ↑ 차이이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 중 여성수가 더 많다. → 옳다.

보기 ④

국가공무원 중 남성 = 국가공무원 × (1-국가공무원 여성비율)

2013년에 국가 공무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그대로 이므로, 당연히 남성수는 감소하였다.

→ 옳다.

(※ 혹시 여성공무원이 감소했으나 남성 공무원이 증가했다고 생각했는가?)

답 : ⑤

문 33. ‘갑’은 2017년 1월 전액 현금으로만 다음 <표>와 같이 지출하였다. 만약 ‘갑’이 2017년 1월에 A ~ C신용카드 중 하나만을 발급받아 할인 전 금액이 <표>와 동일하도록 그 카드로만 지출하였다면, <신용카드별 할인혜택>에 근거한 할인 후 예상청구액이 가장 적은 카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표> 2017년 1월 지출내역

(단위 : 만원)

분류	세부항목		금액	합
교통비	버스·지하철 요금		8	20
	택시 요금		2	
	KTX 요금		10	
식비	외식비	평일	10	30
		주말	5	
	카페 지출액		5	
	식료품 구입비	대형마트	5	
		재래시장	5	
의류구입비	온라인		15	30
	오프라인		15	
여가 및 자기계발비	영화관람료 (1만원/회 × 2회)		2	30
	도서구입비 (2만원/권 × 1권, 1만5천원/권 × 2권, 1만원/권 × 3권)		8	
	학원 수강료		20	

<신용카드별 할인혜택>

- A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KTX 요금 2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2만원)
 - 외식비 주말 결제액 5 % 할인
 - 학원 수강료 15 % 할인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없음.
 - 연회비 1만5천원이 발급시 부과되어 합산됨.
- B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KTX 요금 1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1만원)
 - 온라인 의류구입비 10 % 할인
 - 도서구입비 권당 3천원 할인(단, 권당 가격이 1만2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월 3만원
 - 연회비 없음.
- C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택시 요금 1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1만원)
 - 카페 지출액 10 % 할인
 - 재래시장 식료품 구입비 10 % 할인
 - 영화관람료 회당 2천원 할인(월 최대 2회)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월 4만원
 - 연회비 없음.

※ 1) 할부나 부분청구는 없음.
2) A ~ C신용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청구됨.

- ① A - B - C
- ② A - C - B
- ③ B - A - C
- ④ B - C - A
- ⑤ C - A - B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청구 금액이 적기 위해선 많이 할인 받아야한다.
A신용카드 = 최대 할인액 제한 없음
B신용카드 = 최대 할인액 제한 3만원
C신용카드 = 최대 할인액 제한 4만원

<관점의 적용>

만약, A신용카드의 할인액이 4만원이 넘는다면,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1등

A신용카드
조건 ① 2만원할인
조건 ② 0.25만원 할인
조건 ③ 3만원 할인
조건 ⑤ 1.5만원 이용비
총할인액 = 3.75만원 할인
→ B신용카드보단 청구 금액이 적다.

만약, C신용카드의 할인액이 3만원이 넘는다면, B신용카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1등

C신용카드
조건 ① 1만원할인
조건 ② 0.5만원 할인
조건 ③ 0.5만원 할인
조건 ⑤ 0.4만원 할인
총할인액 = 2.4만원 할인

B신용카드
조건 ① 1만원할인
조건 ② 1.5만원 할인
총할인액 = 2.5만원 이상 할인

→ A > B > C 순이다.

답 : ①

문 34. 다음 <표>는 ‘갑’국 A공무원의 보수 지급 명세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보수 지급 명세서

(단위 : 원)

실수령액 : ()			
보수		공제	
보수항목	보수액	공제항목	공제액
봉급	2,530,000	소득세	160,000
중요직무급	150,000	지방소득세	16,000
시간외수당	510,000	일반기여금	284,000
정액급식비	130,000	건강보험료	103,000
직급보조비	250,000	장기요양보험료	7,000
보수총액	()	공제총액	()

※ 실수령액 = 보수총액 - 공제총액

- ① ‘봉급’이 ‘보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 이상이다.
- ② ‘일반기여금’이 15 % 증가하면 ‘공제총액’은 60만원 이상이 된다.
- ③ ‘실수령액’은 ‘봉급’의 1.3배 이상이다.
- ④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5배 이하이다.
- ⑤ ‘공제총액’에서 ‘일반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수총액’에서 ‘직급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6배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총액이 빈칸으로 구성됐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가중평균의 응용-2)

보수총액 = 3,570,000

$$\frac{2,530,000}{3,570,000} = \frac{2,800 - 270}{4,000 - 430}, \frac{270}{430} < 0.7 \text{ 이므로, 70\%이상이다.}$$

보기 ② (올올올-2)

공제 총액 = 570,000

일반기여금 15% 증가하면 30,000보다 클까?

$$284,000 \times 0.15 > 30,000 \rightarrow \text{옳다.}$$

보기 ③ (가중평균의 응용-2)

실수령액 = 보수총액 - 공제총액 = 3,000,000

$$\frac{3,000,000}{2,530,000} = \frac{2600 + 400}{2000 + 530} < 1.3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답 : ③

문 35. 다음 <표>는 A ~ D지역으로만 이루어진 ‘갑’국의 2015년 인구 전입.전출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5년 인구 전입.전출

(단위 : 명)

전출지 \ 전입지	A	B	C	D
A		190	145	390
B	123		302	260
C	165	185		110
D	310	220	130	

- * 1) 전입.전출은 A ~ D지역 간에서만 이루어짐.
- 2) 2015년 인구 전입.전출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며, 동일인의 전입.전출은 최대 1회만 가능함.
- 3) 예시 : <표 1>에서 ‘190’은 A지역에서 190명이 전출하여 B지역으로 전입하였음을 의미함.

<표 2> 2015, 2016년 지역별 인구

(단위 : 명)

지역 \ 연도	2015	2016
A	3,232	3,105
B	3,120	3,030
C	2,931	()
D	3,080	()

- * 1) 인구는 매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함.
- 2) 인구변화는 전입.전출에 의해서만 가능함.

<보고서>

‘갑’국의 지역간 인구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의 전입.전출을 분석한 결과 총 2,530명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갑’국의 4개 지역 가운데 ㉠전출자 수가 가장 큰 지역은 A이다. 반면, ㉡전입자 수가 가장 큰 지역은 A, B, D 지역으로부터 총 577명이 전입한 C이다. 지역간 인구 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2015년 인구이동 결과, ㉢2016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D이며, ㉣2015년과 2016년의 인구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A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제 유형>

일반 형(㉠~㉣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을 이용하면 <표2>의 값을 채울 수 있다.

<관점의 적용>

보기 ㉠ (계산이 아닌 가공)

A의 전출자수 = 190+145+390 = 725 → 옳다.

③,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

보기 ㉣ (계산이 아닌 가공)

2015년과 2016년의 인구수 차이

A의 경우 3232-3105 = 127명

B의 경우 3120-3030 = 90명차이

C의 경우 165+185+110-145-302-130 = 117명 차이

D의 경우 310+220+130-390-260-110 = 100명 차이
→ 옳다.

(※ D값을 위의 방법말고 더 쉬운 방법으로 구할 순 없을까?)

①, ②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36. 다음 <표>는 ‘갑’,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4	2015	전년대비 증가액
과세표준	150,000	()	20,000
매출세액(a)	15,000	()	2,000
매입세액(b)	7,000	()	0
납부예정세액(c) (= a - b)	8,000	()	()
경감·공제세액(d)	0	()	0
기납부세액(e)	1,500	()	2,000
확정세액 (= c - d - e)	6,500	()	()

<표 2>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4	2015	전년대비 증가액
과세표준	190,000	130,000	- 60,000
매출세액(a)	19,000	13,000	- 6,000
매입세액(b)	14,000	16,000	2,000
납부예정세액(c) (= a - b)	5,000	()	- 8,000
경감·공제세액(d)	4,000	0	- 4,000
기납부세액(e)	0	0	0
확정세액 (= c - d - e)	1,000	()	- 4,000

- ※ 1) 확정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받고, 양수이면 납부함.
- 2) 매출세액 = 과세표준 × 매출세율
- ① 2014년과 2015년 매출세율은 10 %이다.
- ②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
- ③ 2015년 ‘을’ 기업은 300만원을 환급 받는다.
- ④ ‘갑’ 기업의 납부예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0 % 이상 증가하였다.
- ⑤ 2015년 매출세율이 15 %라면, 2015년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을’ 기업의 4배 이상이다.

<문제 유형>

-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c = a - b$

확정 세액 = a - b - d - e

<관점의 적용>

- 보기 ①
- $\frac{19000}{190000} = 10\%$, $\frac{13000}{130000} = 10\% \rightarrow$ 둘다 10%이다. $\rightarrow$ 옳다.
-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 갑 기업의 확정세액의 증감 = 전년대비 증감을 이용하자
- 확정 세액 증감 = a증감 - b증감 - d증감 - e증감 = 0
- $\rightarrow$ 옳지 않다.
- 답 : ②

문 37. 다음 <표>는 2014 ~ 2016년 추석연휴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추석연휴 및 평소 주말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추석연휴 하루평균			평소 주말 하루평균		
	사고	부상자	사망자	사고	부상자	사망자
전체교통사고	487.4	885.1	11.0	581.7	957.3	12.9
졸음운전사고	7.8	21.1	0.6	8.2	17.1	0.3
어린이사고	45.4	59.4	0.4	39.4	51.3	0.3

※ 2014 ~ 2016년 동안 평균 추석연휴기간은 4.7일이었으며, 추석연휴에 포함된 주말의 경우 평소 주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2> 추석 전후 일자별 하루평균 전체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추석연휴전날	추석전날	추석당일	추석다음날
사고	822.0	505.3	448.0	450.0
부상자	1,178.0	865.0	1,013.3	822.0
사망자	17.3	15.3	10.0	8.3

<보고서>

2014 ~ 2016년 추석 전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전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연휴전날에는 평소 주말보다 하루평균 사고건수는 240.3건, 부상자 수는 220.7명 많았고, 사망자 수는 30 %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건당 부상자 수와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 수는 각각 추석당일이 추석전날보다 많았다.

㉢ 졸음운전사고를 살펴보면, 추석연휴 하루평균 사고건수는 평소 주말보다 적었으나 추석연휴 하루평균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평소 주말보다 각각 많았다. 특히 ㉣ 졸음운전사고의 경우 평소 주말 대비 추석연휴 하루평균 사망자의 증가율은 하루평균 부상자의 증가율의 10배 이상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사고가 14 ~ 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어린이사고의 경우 평소 주말보다 추석연휴 하루평균 사고건수는 6.0건, 부상자 수는 8.1명, 사망자 수는 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제 유형>

일반 형(㉠~㉢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 (올올올 - 2)

$$\text{사고 건수} = 822.0 - 581.7 = 240.3$$

$$\text{부상자 수} = 1178.0 - 957.3 = 220.7$$

$$\text{사망자수} = \frac{17.3}{12.9} = \frac{13+4.3}{10+2.9} > 1.3 \rightarrow \text{옳다.}$$

④,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

보기 ㉡ (계산이 아닌 가공)

$$\text{교통사고 건당 부상자수} = \frac{\text{부상자수}}{\text{사고}}$$

$$\text{추석당일} \left(\frac{1013.3}{448} \right), \text{추석전날} \left(\frac{865}{505.3} \right) \rightarrow \text{당일이 크다}$$

$$\text{교통사고 건당 사망자수} = \frac{\text{사망자수}}{\text{사고}}$$

$$\text{추석당일} \left(\frac{10}{448} \right), \text{추석전날} \left(\frac{15}{505.3} \right) \rightarrow \text{전날이 크다.}$$

→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 보기 ㉤중 선택

보기 ㉢ (계산이 아닌 가공)

졸음운전사고의 경우 평소 주말대비 추석연휴 하루평균 사망자

$$\text{의 증가율} = \frac{0.6-0.3}{0.3} = 100\%$$

$$\text{하루평균 부상자의 증가율} = \frac{21.1-17.1}{17.1} \approx 20\%$$

→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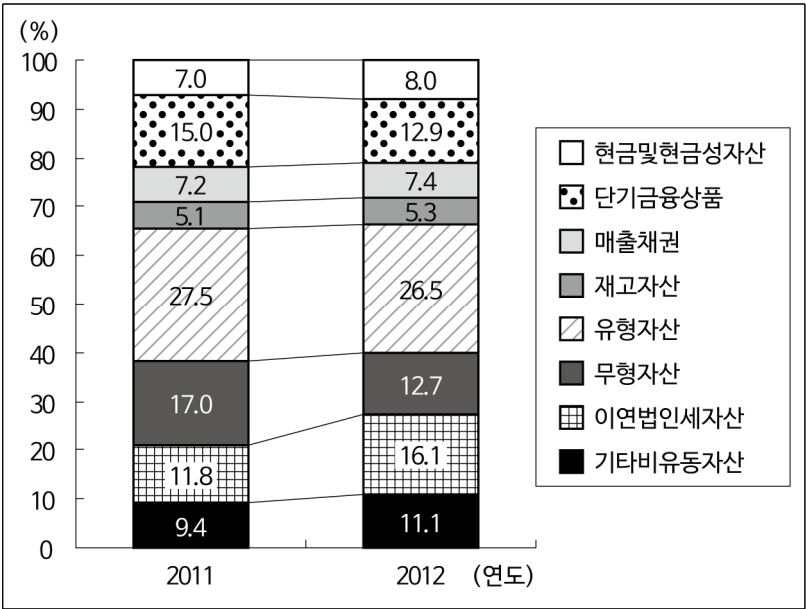
(※㉢ 보기를 풀어야 할까?)

②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38. 다음 <그림>은 A기업의 2011년과 2012년 자산총액의 항목별 구성비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자산총액의 항목별 구성비



※ 1) 자산총액은 2011년 3,400억원, 2012년 2,850억원임.
 2)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보 기>

- ㄱ. 2011년 항목별 금액의 순위가 2012년과 동일한 항목은 4개이다.
- ㄴ. 2011년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의 구성비는 45 % 미만이다.
- ㄷ.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은 2012년이 2011년보다 크다.
- ㄹ. 2011년 대비 2012년에 ‘무형자산’ 금액은 4.3 %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각 막대는 분모가 동일하다
 2011년의 분모값 = 3400억원
 2012년의 분모값 = 2850억원
 유동자산 = 위에서 4개

<관점의 적용>

보기 ㄱ (순위)
 2011년 순위
 유형 무형 단기금융 이연법인 기타비유동 매출채권 현금 재고
 2012년 순위
 유형 이연법인 단기금융 무형 기타비유동 현금 매출채권 재고
 → 유형, 단기금융, 기타비유동, 재고로 4개이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 먼저 풀어야 할까?)

보기 ㄷ (%와 %p)
 4.3%p가 감소했지 4.3%가 감소하지 않았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자산총액 × 비중
 2011년 = 3400 × 7.0 2012년 = 2850 × 8.0
 → 550 × 7 > 2850 × 1
 → 2011년이 더 크다. → 옳지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 다음 <표>는 6세 미만 영유아 1,000명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영유아 소속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단위 : %)

시설유형	영유아 소속 가구소득 수준	출생 후 현재까지			최근 1년 동안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가구 영유아	전체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가구 영유아	전체
일반도서관		24.0	23.0	23.8	21.0	19.5	20.7
어린이도서관		25.3	13.0	22.8	22.5	11.5	20.3
일반박물관		26.0	16.5	24.1	18.3	11.0	16.8
어린이박물관		22.0	8.0	19.2	17.0	4.5	14.5
일반미술관		8.6	7.5	8.4	6.6	3.5	6.0
어린이미술관		7.5	1.5	6.3	5.1	0.5	4.2
문예회관		15.3	10.5	14.3	11.8	7.5	10.9
어린이놀이터		95.8	93.5	95.3	95.0	92.5	94.5

- ※ 1) 조사대상 중 무응답은 없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이용한 것으로 집계함.
2) 일반가구란 가구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지칭함.
3)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39.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가구 영유아 수는 저소득가구 영유아 수의 3배 이상이다.

ㄴ.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가구 영유아 중에 최근 1년 동안 일반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는 30명 미만이다.

ㄷ. 전체 영유아의 출생 후 현재까지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순위와 전체 영유아의 최근 1년 동안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순위는 동일하다.

ㄹ.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과 최근 1년 동안 저소득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은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출생 후 현재까지안에는 최근 1년 동안이 포함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가중평균)

일반가구와 저소득, 전체의 가중평균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도서관을 이용하자 → 23 공통소거

일반 가구 × 1.0 = 전체 × 0.8

일반 가구의 비중 = 80%, 저소득 가구 = 20%

3배 이상이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출생후 현재까지 일반가구 영유아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 어린이 미술관(7.5)

최근 1년동안 저소득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 어린이 미술관(0.5)

동일하다 → 옳다.

①,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 다음 <표>는 6세 미만 영유아 1,000명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영유아 소속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단위 : %)

시설유형	기간			최근 1년 동안		
	영유아 소속 가구소득 수준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가구 영유아	전체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가구 영유아
일반도서관	24.0	23.0	23.8	21.0	19.5	20.7
어린이도서관	25.3	13.0	22.8	22.5	11.5	20.3
일반박물관	26.0	16.5	24.1	18.3	11.0	16.8
어린이박물관	22.0	8.0	19.2	17.0	4.5	14.5
일반미술관	8.6	7.5	8.4	6.6	3.5	6.0
어린이미술관	7.5	1.5	6.3	5.1	0.5	4.2
문예회관	15.3	10.5	14.3	11.8	7.5	10.9
어린이놀이터	95.8	93.5	95.3	95.0	92.5	94.5

- ※ 1) 조사대상 중 무응답은 없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이용한 것으로 집계함.
- 2) 일반가구란 가구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지칭함.
- 3)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40. 다음 <보고서>는 위 <표>와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기>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만을 모두 고르면?

<보고서>

- 전체 영유아의 출생 후 현재까지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은 어린이놀이터가 95.3 %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미술관이 6.3 %로 가장 낮았다. 이를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영유아와 저소득가구 영유아 모두 출생 후 현재까지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중 어린이놀이터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어린이미술관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 출생 후 현재까지의 소비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의 경우 일반가구 영유아와 저소득가구 영유아 모두 놀이공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키즈카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소비재 문화시설 유형 각각에서 일반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저소득가구 영유아의 이용률보다 높았다.
- 영유아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최초 이용 시기를 살펴보면, 90 % 이상의 영유아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만 3세가 되기 전이며, 나머지 모든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들은 만 4세가 되기 전에 90 % 이상의 영유아가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의 최근 1년 동안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역시 출생 후 현재까지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과 동일하게 어린이놀이터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수준별로도 일반가구 영유아와 저소득가구 영유아 모두 어린이놀이터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 소비재 문화시설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영유아의 극장 이용목적은 관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키즈카페 이용목적은 놀이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ㄱ. 영유아의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최초 이용 시기 (단위 : %)

최초 이용 시기 시설 유형	만 0세 이상 만 1세 미만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만 4세 이상 만 5세 미만	만 5세 이상 만 6세 미만	계
일반도서관	0.8	10.1	24.8	34.5	24.4	5.4	100.0
어린이도서관	0.9	11.1	26.1	39.4	19.0	3.5	100.0
일반박물관	0.4	10.9	21.8	39.3	23.0	4.6	100.0
어린이박물관	0.5	12.2	21.7	42.3	18.5	4.8	100.0
일반미술관	1.2	15.5	22.6	38.1	15.5	7.1	100.0
어린이미술관	0.0	9.7	17.7	33.9	32.3	6.4	100.0
문예회관	2.8	13.3	30.8	33.6	16.1	3.4	100.0
어린이놀이터	13.5	60.1	20.3	5.5	0.4	0.2	100.0

ㄴ.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의 출생 후 현재까지 소비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단위 : %)

시설유형	영유아 소속 가구소득 수준	일반가구 영유아	저소득가구 영유아	전체
극장		51.5	34.0	48.0
놀이공원		71.9	65.5	70.6
키즈카페		53.1	33.0	49.1
수족관 및 동.식물원		65.6	49.5	62.4

ㄷ. 영유아의 최근 1년 동안 소비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 목적 (단위 : %)

시설 유형	이용 목적	관람	프로 그램 참여	놀이 활동	독서· 대출	지식 습득	가족과 시간 향유	부모 휴식	계
극장		74.3	1.9	7.1	0.0	0.5	14.3	1.9	100.0
놀이공원		4.1	1.2	47.3	0.0	0.5	44.3	2.6	100.0
키즈카페		2.0	3.9	74.8	0.2	1.1	8.0	10.0	100.0
수족관 및 동.식물원		22.9	2.5	7.9	0.2	7.4	58.7	0.4	100.0

- ① ㄱ

② ㄴ
-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보고서 → 차트변환형

① 보고서와 연결부터 하자

②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판단하자

<통일된 습관>

2문단 = ㄴ 3문단 = ㄱ 5문단 = ㄷ

<관점의 적용>

2문단에서 키즈카페의 이용률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낮았다고하였으나, 보기ㄴ에서 일반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은 극장이다.

3문단에서 90%이상의 영유아가 4세 이전에 모든 공공재 문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보기 ㄱ을 보면 그렇지 않다.

답 : ③